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국무원,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애로 해소 지원방안 발표

- 5월 5일,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强)은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여 세금환급,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물류 운송 활성화, 기업 조업재개 추진 등으로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수출입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노동집약형 수출입 기업의 생산유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중점 무역기업 리스트를 확정해 생산·물류를 보장 △해상·항공 운송을 보장하고 통관 효율향상. 특히 중요한 부품, 장비, 제품의 운송을 보장 △가공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중서부와 동북부의 노동집약형 가공무역을 국가 장려 산업목록에 포함시킴 △대형 의료장비·로봇 등을 보세 정비 범위에 포함시키고, 자동차 엔진 등을 보세 제조 시범사업 목록에 포함시킴 △중소기업 및 무역상에 대한 신용 투자를 확대 △인민폐 환율의 안정화를 유지 △각 지역별로 대외경제무역 발전을 위한 특별 자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지원하며, 신규 무역시범구를 구축하는 것 등임

자료원 : 국무원

http://www.gov.cn/premier/2022-05/05/content_5688727.htm

2 中 발개위,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 목록 (2022년 버전)> 의견 수렴

- 5월 10일, 발개위 및 상무부는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 목록(2022년 버전)> (《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2022年版) (征求意见稿)》) 을 발표하여 6월 10일까지 동 법안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할 예정
-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 목록>은 2020년 버전으로, 신규 2022년 목록은 2020년 대비 238건 추가, 114건 수정, 38건이 삭제됨. 주요 개정 내용으로 △외국인의 제조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 목록에 신규 부품·장비 제조 품목 추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생산자 서비스업에 투자하도록 독려. 목록에 디자인, 기술 서비스, 기술 개발

등을 신규로 추가 △외자기업이 지속적으로 중서부 및 동부지역으로 투자하도록 독려. 중서부지역 목록은 지역별 노동력, 특색 자원 등의 우수와 투자 유치 수요에 근거한다는 조항을 신규 추가하였음

자료원 : 발개위

https://hd.ndrc.gov.cn/yjzx/yjzx_add.jsp?SiteId=380

3 中 발개위, <14차 5개년 바이오 경제발전 계획> 발표

■ 5월 10일, 발개위는 <‘14차 5개년’ 바이오 경제발전 계획> (《“十四五”生物经济 发展规划》)을 발표하여 헬스케어, 바이오 농업,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친환경, 바이오 정보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힘

- 동 계획에서 언급한 바이오 경제의 4대 중점 분야는 △첫째, '질병 치료 중심'에서 '건강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발전을 추진 △둘째는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서 '다차원 영양섭취'로 바이오 농업의 발전을 추진 △셋째는 '생산능력 추구'에서 '생태 우선'으로 친환경 저탄소의 바이오 추진 △국가 바이오안전 위험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것 등임
- 또한 유전자, 합성생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조단백질' 등 새로운 식품 개발을 모색하여 식품공업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며 효소제, 미생물 제제, 발효사료, 아미노산 등 바이오사료를 발전시켜 원자재 결핍, 환경오염 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원 : 발개위

https://www.ndrc.gov.cn/xxgk/zcfb/ghwb/202205/t20220510_1324436.html?code=&state=123

http://m.ce.cn/ttt/202205/10/t20220510_37568546.shtml

4 中 해관총서, 코로나19방역 강화 및 수출입 안정화 추진 계획

■ 4월 28일, 해관총서 당서기 위젠화(俞建华)는 '코로나19의 외국유입 방지·국내 반등 방지', '제로코로나'의 방침을 견지함으로써, 통상구의 방역을 강화하고, 수출입의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동 회의에서는 △중양에서 집행하는 6대 안정(六稳·취업·금융·무역·외자·투자·시장전망) 및 6대보장(六保·취업·민생·시장주체·식량에너지안보·산업공급망·기층조직운영) 업무에 따라 세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무역의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을 언급했으며, 또한 △통상구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며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 △국제 무역 '단일 창구'

건설을 가속화 △대외개방 플랫폼 건설을 대대적으로 지원 △종합 보세구의 개방을 확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해외 창고 상품 반품 관리 및 감독을 최적화 하는 것 등 내용을 언급하였음

- 한편 5월 9일 해관총서에 따르면, 1~4월 중국의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7.9% 늘어난 12조5,800억 위안(약 2,375조 9,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이중,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0.3% 증가한 6조 9,700억 위안(약 1,320조 원), 수입은 5.0% 늘어난 5조 6,100억 위안(약 1,050조 7,000억 원)을 기록함

자료원 :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xwfb34/302425/4324924/index.html>

<http://finance.people.com.cn/n1/2022/0509/c1004-32417724.html>

5 中 세무총국, <수출세 환급절차 간소화 실시 조치>발표

■ 4월 29일, 중국 세무총국은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수출세 환급 절차 간소화 실시 조치> 《关于进一步加大出口退税支持力度促进外贸平稳发展的通知》를 발표함

- 해당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수출세 환급 기업을 분류하여 관리 △수출세 환급 등록 관리를 최적화 △가공무역의 수출세 환급정책을 정비 △수출세 환급 제출서류 간소화 △수요가 있는 기업 상대로 수출세 환급 알림 서비스를 개통하는 것 등이 포함됨
-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연말 기준 중국내 수출세 환급 행정 처리시간은 2018년의 평균 13일(근무일)에서 6일(근무일)로 단축된 것으로 집계됨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77/c5175044/content.html>

<https://www.chinanews.com.cn/cj/2022/02-15/9676909.shtml>

6 베이징시, <중점물자 운송차량 통행증> 발급 운영

■ 4월 29일, 베이징시교통위원회는 <베이징시 중점물자 운송차량 통행증> 《北京市重点物资运输车辆通行证》을 발표하여, 방역의료물품, 주민생활필수품 등 주요 민생물자와 농업, 에너지, 원자재, 중점 공산품 등의 주요 생산물자 및 중점 무역상의 물자 수송을 보장하겠다고 밝힘

- 중점물자 운송차량 통행증 신청조건 : △물자 수송의 출발지 또는 목적지는 반드시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 해당되어야 하며, 송수화인은 모두 베이징 소재 기업이어야 함 △신청 기관은 차량이

출발하거나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신고해야 함 △운송 차량의 연간 허가증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위험 화물 도로 운송 차량, 적재량이 12톤 이상인 일반 화물 차량의 위성 시스템은 정상화 되어 있어야 함 △운전사의 자격증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운전 차량 취급 범위와 일치해야 함(4.5톤 이하 일반 화물 차량 운전은 제외)

- **중점물자 운송 차량의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 △베이징시 소재 기업은 '베이징시 스마트 화물 종합 서비스 플랫폼' (<http://bj.zhihuohuoyun.cn>)을 통해 등록한 후 기업 서약서를 작성 △심사 통과 후 시스템을 통해 전자판 통행증을 생성 △신청인은 통행증을 스스로 다운로드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서류·전자 증명서는 동등한 효력을 소지함

자료원 : 베이징시 교통위원회

http://jtw.beijing.gov.cn/xxgk/tzgg/202204/t20220429_2698873.html

7 베이징시, 1인당 2대 이상 개인소유 자가용에 대해 단속 실시

- 5월 7일, 베이징시 교통국은 〈14차 5개년 베이징시 교통발전 건설 계획〉(《北京市“十四五”时期交通发展建设规划》)에서 1인당 2대 이상 개인소유 자가용에 대해 순차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 이에 따라 개인이 보유한 자가용 수량을 조정함과 동시에 점차 신에너지 자동차의 비중을 늘리고, 자가용이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통행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디젤화물차 통행제한 조치, 평일 시간대에 따른 구간 통행제한 조치, 신에너지 물류배송차량 우선 통행정책을 실시하는 등 계획을 제시함
- 한편, 베이징시 교통국은 2025년까지 베이징시의 자가용 보유량을 580만 대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원 : 베이징시 인민정부

http://www.beijing.gov.cn/zhengce/zhengcefagui/202205/t20220507_2704320.html

<http://news.hexun.com/2022-05-09/205894912.html>

8 베이징시, 〈차오양구 방역강화 및 전원 재택근무 실시〉 발표

- 5월 5일, 베이징시 차오양구(朝阳区)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대비하고 대중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차오양구 방역강화 및 전원 재택근무 실시〉(朝阳区关于进一步加强疫情防控措施实行全区居家办公的通告)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하여 기관, 기업, 관련

서비스업은 재택근무, 영업정지, 폐쇄관리 등의 방식으로 인원 유동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으며, 조업 재개 시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

- 동 통지문의 주요내용으로 △노래방, PC방, 영화관,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모든 실내 문화 오락·스포츠 헬스장과 각종 교육 기관은 휴업을 실시 △재택근무 기간 중 근무시간, 근로보수, 휴무휴가 등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 △노동자 권익 보장 등은 민원서비스 12333로 연락하도록 조치 △국유주택을 임차하는 서비스업 중소·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고, 비국유주택의 임대료도 적정 수준으로 감면하도록 권장 △차오양구(朝阳区) 정부는 영세기업을 위해 조업재개보험에 가입했으며, 정부의 방역 및 통제 요구에 따라 조업을 중단한 영세 서비스 기업은 중국 인민재산보험주식회사 북경시 사(中国人民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北京市分公司)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하루 100위안(약 1만 9,000원)씩 최장 21일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등 내용이 포함됨
- 한편, 지난 4월 30일 베이징시정부는 5월 5일부터 공공장소 진입·교통수단 이용 시 7일 이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요구하는 핵산검사 일상화 시행조치를 발표한바 있음

자료원 :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정부

<http://www.bjchy.gov.cn/dynamic/zwhd/4028805a8094a2f001809747d355011f.html>

http://m.cnr.cn/auto/20220504/t20220504_525815053.html

9 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석탄 수입 0% 잠정세율 적용

- 4월 28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석탄 수입 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문〉(国务院关税 税 则委员会关于调整煤炭进口关税的公告)을 발표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석탄 수입에 대해 잠정세율인 0%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힘
-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2018년 2억 8,000만 톤, 2019년 2억 9,900만 톤, 2020년 3억 톤, 2021년 3억 2,000만 톤에 달함. 2022년 1/4분기 중국의 석탄수입량은 5,181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1.2% 감소한 것으로 집계
-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은 향후 석탄수요가 증가할 추세라고 밝히면서, 코로나 19가 통제된 후 각 지역의 대규모 조업재개를 대비하고, 또한 식량생산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비료 공급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비료 생산의 중요한 원자재인 석탄의 가격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자료원 : 재정부

http://gss.mof.gov.cn/gzdt/zhengcejiedu/202204/t20220428_3807198.htm

<https://3g.163.com/dy/article/H6DI1IDU0552ZL9X.html>

10 美, 중국산 목재 침실가구에 반덤핑 규제지속 판정

■ 5월 6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목재 침실가구(Wooden Bedroom Furniture)에 제3차 반덤핑 일몰재심에서 규제지속 판정을 함

- 동건의 HS 코드는 9403.50.9042, 9403.50.9045, 9403.50.9080, 9403.90.7005등이며, 중국기업의 반덤핑 관세 부과율은 198.08%임
- 미국 상무부는 2003년 4월 21일에 최초로 중국산 목재 침실가구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바 있음

자료원 : 무역구제정보망

<http://cacs.mofcom.gov.cn/cacscms/article/ckys?articleId=173038&type=1>

11 美, 중국산 냉동·통조림 새우에 제3차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 개시

■ 5월 2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냉동·통조림 새우 (Frozen and Canned Warmwater Shrimp)에 제3차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를 개시함

- 미국 상무부는 2004년 7월 16일 최초로 중국산 냉동·통조림 새우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으며, 중국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90.05~112.81% 내린바 있음

자료원 : 무역구제정보망

<http://cacs.mofcom.gov.cn/cacscms/article/ckys?articleId=173022&type=1>

<http://www.chinanews.com.cn/cj/2010/08-26/2493299.shtml>

12 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지역별로 '옐로우 코드 병원(黄码医院)' 구축 가속화

■ 4월 29일, 국무원뉴스브리핑에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국장 이빈(李斌)은 코로나 19 방역을 잘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옐로우 코드 병원(黄码医院)'의 구축을 가속화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옐로우 코드 병원'(黄码医院)은 코로나 19가 확진자가 발생한 중·고위험 지역에서 봉쇄관리를 취하고 있는 인원상대로 서비스하는 지정 병원으로, 치료, 응급처치 등이 필요한 인원에 대해 서비스를 진행하며, 주민관리센터를 통해 예약하고 폐쇄관리를 실시함. '옐로우 코드 병원'의 구체적인 역할은 △원격 진료 서비스를 통해 통제구역내에 있는 위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 △봉쇄 및 통제구역에 거주하는 혈액 투석 환자, 방사선 치료중인 암환자, 임산부, 신생아 등 특수 인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 등임
- 중국이 제로코로나를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방역센터 양완니엔(梁万年)은, 중국은 지역발전 및 의료자원도 불균형하고 어린이와 노인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 갈 경우, 의료 자원의 심각한 부족과 기저질환이 있는 노년층, 어린이, 임산부까지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제로 코로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자료원 : 국무원

http://www.gov.cn/xinwen/2022-04/29/content_5688155.htm

https://mp.weixin.qq.com/s/wgvlwMqaA_ErZe9U2bdqTg